

동지(12월21일)

동지는 글자 그대로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태양이 가장 남쪽으로 기울어져 밤의 길이가 일년 중 가장 긴 날이다. 이 날이 지나면 하루 낮길이가 1분씩 길어지는데 옛 사람들은 태양이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지를 설날로 삼기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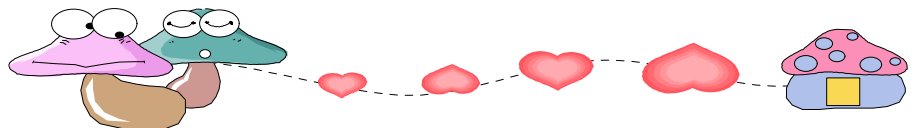
동지 팔죽엔 반드시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죽 그릇에 먹는 사람의 나이 수만큼씩 넣어서 먹는 풍습이 있다

동지 팔죽은 먼저 사당에 올리고 여러 그릇에 나누어 퍼서 장독, 곳간, 헛간, 방 등에 놓아 둔다. 그리고 대문과 벽, 곳간 등에 뿌리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팔죽의 붉은 색이 잡귀를 몰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믿거나 말거나 동지팔죽 이야기

동짓날 팔죽을 먹게 된 데는 전설이 있어요. 옛날 중국 진나라의 공공이란 사람에게는 말썽쟁이 아들이 있었답니다. 공공은 게으른 데다 눈만 뜨면 사고를 치는 아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 없었대요. 그러다 아들이 덜컥 죽었답니다.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요. 사고뭉치라도 아들인데 얼마나 공공이 슬펐을까요. 그런데 이 골칫덩이 아들은 죽어서라도 말썽이었어요. 역질 귀신이 됐지 뭘니까.

공공은 슬퍼할 사이도 없이 역질 귀신이 된 아들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생전에 팔을 몹시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사실을 떠올렸지요. 공공은 서둘러 팔죽을 썬서 대문과 마당에 뿌렸습니다. 집에 들어오려던 귀신은 자신이 질색하는 팔죽을 보고 기겁을 해서 물러갔다는군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해마다 동짓날이 되면 팔죽을 쑤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동지음식

- 1) 팔죽
- 2) 우유죽(타락죽) - 쌀에 우유를 넣고 끓인 죽으로 예날 궁중에서 먹던 동지음식
- 3) 전약 - 쇠죽, 쇠머리와 가죽, 대추고, 계피, 후추, 꿀을 넣어 고아 굳힌 겨울철 보양음식이다.
- 4) 골동면 - 비빔면, 비빔국수라고 한다. 골동이란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 먹는 것을 말한다.